

## 환경위원회, '탈핵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한일 불교 국제세미나' 개최 탈핵 노력 공유 및 지속적 네트워크 형성 공감

조계종 환경위원회(위원장 장명스님)는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일본참여불교네트워크(JNEB)와 공동으로 7월 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탈핵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한일 불교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한자리에 모인 한일 불교계 환경단체들은 양국 정부가 원자력발전 개발을 중지하고, 친환경 대체에너지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김익중 동국대 교수는 '원전 없이 살아가기'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한 번 사고가 발생하면 통제할 수 없는 재앙과 재난을 일으키기 때문에 유럽 등 선진국들은 원전을 줄이고 있으며 태양광, 풍력, 지열, 수력 등 재생가능에너지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진국들은 철저한 전기 수요 관리로 전기 사용량이 거의 증가하지 않는데 비해 우리는 지나치게 많은 전기를

소비하고 있다. 요금체계를 개편해 수요를 감소시키는 한편 에너지 효율화 사업에 투자해야 한다."며 "재생가능에너지 개발이 세계적인 추세이며 이를 따르는 것이 한국이 탈핵으로 가는 길, 원전 없이 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기후변화와 탈핵, 그리고 녹색불교'를 주제로 발표한 최원형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장은 "원자력은 기후변화의 대안이 아니며 오히려 인류를 위협하는 또 하나의 재앙으로 등장했다."며 "온실가스 감축과 탈핵이야말로 기후변화의 재앙과 핵의 위험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또 서울시와 총무원의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등 불교계의 탈핵과 에너지전환을 위한 활동을 소개했다.

2011년 3월 쓰나미로 인한 후쿠시마 원

전 사고 이후 일본 내에서 탈핵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활동에 주력해온 일본참여불교네트워크의 히데히토 오코치 스님은 "원전은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을 수반하며, 사회적 약자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구조적인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생명의 종교인 불교가 대체에너지 개발 운동에 적극 앞장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환경위원회는 "2009년 신재생에너지팀 구성 이후 태양광, 지열 등 대체에너지를 사찰에 도입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원전의 안전과 추가 건설에 대한 입장 발표와 정책 토론회, 밀양송전탑 문제 등 원전과 관련한 활동을 진행해 왔다."며 "일본참여불교네트워크와 함께 탈핵 노력과 성과를 공유하고 지속적인 연대 협력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글 편집부



(위)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장 정문스님 인사말 (아래) '탈핵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한일 불교 국제세미나'에서 최원형 소장, 김익중 교수, 이병민 교수(사회), 히데히토 오코치 스님이 토론하고 있다.

##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제3회 뉴욕 한국사찰음식의 날 성료 한국 사찰음식, 세계의 중심 뉴욕에 우뚝 서다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진화스님)이 뉴욕 대한민국총영사관, 한국문화원과 함께 6월 23일부터 7월 1일까지 개최한 '제3회 뉴욕 한국사찰음식의 날'이 뜨거운 호평 속에 막을 내렸다.

건강한 사찰음식의 맛과 멋을 전하는 이 행사는 2010년부터 2년마다 열렸으며, 올해로 세 번째다. 특히 금년은 'Natural and Healthy meals, Korean Vegetarian Food redefined'이라는 주제로 세계 문화의 중심부인 뉴욕에서 사찰음식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면서 현지 관광·조리업계의 시장 개척을 위한 자리였다.

사업단은 23일 뉴욕의 유수한 조리전문 교육기관 CIA(The Culinary Institute of America)를 찾아 교수진과 학생들의 열띤 관심 속에 사찰음식 전문가 적문스님의 사찰음식 강연 및 시연회를 진행했다. 이어 25일과 26일에는 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 및 한국문화원과 함께 두 차례에 걸친 만찬 행사를 열어 한국의 사찰음식과 템플스테이를 소



개했다. 링컨센터 펜트하우스에 초청된 주요 언론 미디어 관계자 및 유명 요리사, 정·재계와 문화계 인사들은 사찰음식(한상차림 스타일)을 직접 보고 음미하며 큰 찬사를 보냈다. 특히 사찰음식을 주제로 한 푸드 토크쇼와 템플스테이 설명회에 대한 반응이 뜨거웠다.

28일에는 뉴욕 CBS TV의 아침 뉴스 및 생활정보 전문 프로그램인 'CBS This Morning'에 적문스님이 출연, 오신채를 사용하지 않는 사찰음식의 특징을 소개했다.

진행자는 삼색 연근 부각과 은행, 잣 등을 넣어 만든 연자밥을 직접 시식한 후 독특한 맛과 향에 감탄했다.

30일에는 맨해튼의 유명 요리학교 ICE(Institute of Culinary Education)에서도 강연을 갖고 6개 언어(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어, 독일어, 불어)로 제작된 한국사찰음식 홍보 책자를 학교 도서관에 기증함으로써 한국 사찰음식의 위상을 높였다.

한편, 29일부터 7월 1일까지 맨해튼 제이콥 자빗 센터에서 열린 미국 최대의 식품



(좌) CIA에서 사찰음식을 시연하는 적문스님 (우) 문화사업단장 진화스님이 식품박람회 팬시푸드쇼에서 소감을 전하고 있다.

박람회 팬시 푸드 쇼(FANCY FOOD SHOW) 한국관에서 세계 음식업계 관계자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사찰음식 시연 및 시식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진화스님은 "가장 한국적이고 전통적인 문화가 세계 어디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문화콘텐츠임을 실감한다. 세계의 문화가 집결되는 뉴욕의 중심부에서 한국불교와 사찰음식의 우수함을 전하게 되어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사찰음식 홈페이지 [www.koreantemplefood.com](http://www.koreantemplefood.com)



# 동국대 불교학술원, 불교기록문화유산 웹 서비스 공개

디지털 대장경의 시대가 열렸다. 이제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과 스마트미디어를 통해 대장경과 불교 문헌 등 한국불교 자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원장 현각스님)은 7월 2일 충무로영상센터 227호 강의실에서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 웹 서비스 시스템(kabc.dongguk.edu) 설명회'를 갖고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 시스템은 불교학술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동국대의 지원으로 2012년부터 작업해 온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ABC) 구축 사업'의 성과를 담은 웹 서비스이다. 불교기록유산을 인터넷이나 스마트미디어를 이용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21세기 디지털 대장경 조성사업으로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손쉽게 불교 지식과 문화를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시스템은 크게 통합대장경, 한국불교전서, 신집성문헌 등 세 가지 콘텐츠로 구성된다. 통합대장경은 다양한 계통과 언어 및 판본으로 전승되어 온 대장경을 동시에 열람하고 검색할 수 있도록 통합한 디지털 대장경을 일컫는다. 한국불교전서는 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한국인에 의해서



편찬된 불교 관련 저술을 집대성한 총서로 한국불교뿐만 아니라 한국사상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원전자료다. 신집성문헌은 국내외 사찰, 기관,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불교기록문화유산을 조사 연구하고 체계적으로 분류 집성한 것이다. 웹 서비스는 자료별로 검색 및 원문 뷰어시스템을 개발하여 자료의 특성에 따라 이미지를 찾을 수 있게 했으며, 모든 자료를 한글과 한자의 구분 없이 자료의 성격별로 분류하여 이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검색 대상을

세분화하여 상세검색이 가능하도록 했고, 연계 검색을 통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학위논문, 국내 학술지논문, 단행본 등의 검색과 네이버의 전문자료 및 뉴스검색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했다.

통합대장경에는 <도행반야경> 등 54종의 경전이 통합 구축돼 있다. 고려대장경의 인경본 이미지, 원문 텍스트와 우리말로 번역한 한글대장경을 한 화면에서 볼 수 있다. 한국불교전서에는 <입승법계도원통기> 등 한자 원문텍스트와 이미지 5,134건이 담겨있다. 신집성문헌에는 동화사 등 10개소의 목록 1,470건, 고서 이미지 64,034컷과 <회현기>의 원문이 담겨 있다.

일본의 대정신수대장경 데이터베이스(SAT)나 대만의 중국전자불전협회(CBETA)에서는 경전 원문 위주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ABC 시스템은 한글과 한자는 물론 경전과 책의 실물 이미지까지 볼 수 있다. 학술원은 전국의 기록문화유산을 조사해 데이터를 축적하면서 서비스 검색을 업그레이드하는 한편 영문서비스도 계획하고 있다.

불교학술원 kabc.dongguk.edu

## 나란다축제, 세대와 국가를 초월한 축제 한마당으로 승격

불교교리경시대회에서 출발해 불교문화·포교축제로 성장하고 있는 '나란다 축제'가 9월 20일, 21일, 24일 3일간 열린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스님)과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이사장 자승스님, 조계종 총무원장)은 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제6회 나란다축제 일정과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올해 종단 행사로 승격한 나란다축제는 그동안 열린 '교리경시대회', '도전! 범종을 울려라', '전통불교문화 체험마당' 외에도 '나란다댄스경연대회'와 '회향 한마당'을 새롭게 선보인다. 또 경찰대학교 학생들이 사관생도 부문에 처음 참가하고 외국인들의 참여도 확대되었다.

퀴즈대회 형식으로 열리는 '도전! 범종을 울려라'는 9월 20일 초등부와 일반인, 외국인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중·고등부는 학교와 사찰 등에서 예선을 통과한 학생들이 9월 20일 오후 2시 동국대학교에 모여 경시대회를 치른다. 군장병들은 9월 21일 전국 군법당에 개설된 시험장에서, 사관생도와 경찰대생은 9월 24일 각 학교에 마련된 시험장에서 대회에 참가한다. 부문별



(2013년 외국인 부문 퀴즈대회 모습)

참가접수는 7월 7일부터 31일까지다.

올해 외국인 부문 퀴즈대회 '도전! 범종을 울려라'는 개인전과 단체전으로 나뉘어 열린다. 퀴즈대회는 20일 오전 11시 만해광장에서 원어민 교사, 다문화 가정, 유학생 등이 대학생 자원봉사자와 1:1 결연을 맺어 퀴즈를 푸는 개인전과 40명이 팀을 구성해 펼치는 단체전으로 진행된다. 외국인에게는 불교문화와 문화재, 전통문화 등 한국을 알릴 수 있는 복합적인 문제가 출제된다.

전통문화체험마당은 교리경시대회와 같은 날 동국대 팔정도 광장에서 열리며 전통문화와 불교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부스를 운영한다. 연등만들기 등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체험마당'과 원어민교사 등 외국인들이 영어로 한국의 전래놀이를 설명하며 함께 즐기는 '놀이마당'으로 진행된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댄스 경연대회에서는 한글 반야심경 등 경전을 활용한 랩 공연을 추가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한다.

올해 처음 신설된 '회향한마당'은 20일 만해광장에서 시상식, 축하공연, 대동한마당으로 진행된다. 또한, 동남아 성지순례 여행권과 태블릿PC 등 푸짐한 경품이 준비되어 있다.

이번 대회는 조계종총무원장상과 포교원장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등과 함께 총 8,000여 만 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부문별 참가자에게 소정의 기념품도 지급한다.

글\_ 편집부

## 진제 종정예하 영문법어집 'Finding the True Self'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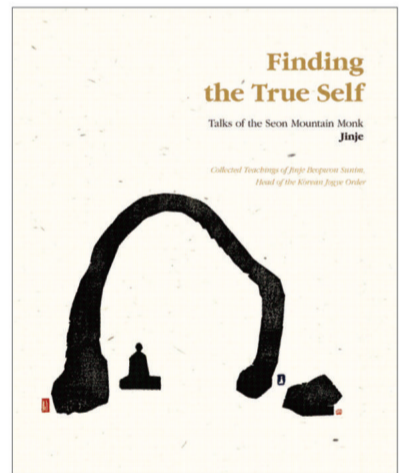
진제 종정예하의 간화선 영문법어집 'Finding the True Self(“나를 찾아서”, 조계종 출판사)가 나왔다.

종정예하스님은 “종정예하께서 간화선 참선법을 전 세계에 제대로 알려야 할 때가 됐다고 말씀하셨다”며 “동양 정신문화의 정수인 간화선을 전 세계에 널리 선양함으로써 한국불교를 알리고 동시에 세계평화와 인류 행복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1980년대 유럽순방을 통해 불교가 크게 선양할 시대가 도래했음을 절감한 종정예하는 이후 국경을 넘나들면서 간화선의 바른 참선법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온 힘을 기울였다. 이러한 종정예하의 노력은 2010년부터 구체화되었는데 특히 세계적인 해방신학자인 폴 니터 미국 유니언신학대 교수와의 만남이 계기가 되었다. 이후 로버트 버스웰 미국 UCLA 교수와 루이스 랭카스터 미국 UC 버클리 대학교 명예교수 등 세계 불교 석학들과 교류하면서 한국불교 간화선의 세계화에 적극 나섰다.

2011년 9월, 미국 개신교의 상징이기도 한 뉴욕 리버사이드교회와 유니언신학대학에서의 간화선대법회 봉행을 시작으로 2012년 2월 미국조찬기도회 60주년 행사, 2012년 10월 뉴욕 맨해튼 유엔플라자 처치센터에서 열린 세계종교지도자모임에서의 간화선 법문 등 계속된 활동은 전 세계인의 시선을 끌기 충분했다. 이러한 진제 종정예하의 원력뿐만 아니라 세계 석학 및 종교인들과의 인연이 맺은 결실이 이번 나온 간화선 영문법어집 'Finding the True Self'이다.

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었다. 하나는 간화선과 바른 참선수행법에 대한 소



개로 소참법문,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구성됐다. 또 다른 하나는 역대 조사 스님들의 법문을 통해 깨달음의 세계를 상세히 서술했다. 이외에도 폴 니터 교수와의 만남, 세계적인 물리학자이자 전 세계 유대교의 정신적 스승인 랍비 잭 뱌포라드와의 대담, 세계 각국에서 펼친 종정예하의 법문 등이 다채롭게 실렸다.

세계적인 불교학 석학 루이스 랭카스터 교수는 서문에서 “진제선사는 화두 참선법을 전 세계인들에게 알리기 위해 당신의 가르침과 지혜를 독자들에게 나누고 있다”며 “그것은 심오하면서도 즐거운 계승들로 표현되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번 법어집은 “달마대사에 의해 인도에서 중국으로 전파되고 태고 보우 국사에 의해 한국으로 건너온 정통 간화선 수행법이 바야흐로 서구로 전파되는 뜻깊은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책은 오는 9월 세계 최대 인터넷서점인 '아마존닷컴'에서 본격 판매된다. 미국과 유럽 등지의 주요 대학 도서관에도 법보시로 기증될 예정이다.

글\_ 편집부



# 미얀마에 배움의 꿈 선물하는 자비의 손길 이어져

불교국가인 미얀마는 공립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싼 등록금과 교통문제 등으로 어린이들이 학교에 다니기 어렵다. 또한, 인구가 적은 오지마을은 더욱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불교사원들이 학교를 세워 무상 교육을 제공하고 있지만, 사원 내에 있기 때문에 잦은 행사와 의식으로 수업이 중단되는 경우가 많다. 불결하고 낡은 재래식 건물 역시 교육 환경을 떨어뜨린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불교계 단체들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 ◆천호희망재단

#### 오지마을 초등학교 건립 기금 후원

천호희망재단(이사장 월서스님, 조계종 원로 의원)은 6월 19일 미얀마 오지마을의 학교 건립 기금 1만 달러(한화 1050만 원 상당)를 전달했다. 미얀마 북부 바간에서 한 시간 거리에 있는 쉼뻏이라는 작은 마을에 학교가 없어 초·중·고 학생 450여 명이 집에서 공부하고 있다는 사연을 듣고 강의실 건립을 후원하게 된 것이다.

쉼뻏마을은 약 90가구로 구성된 시골 마을이다. 양관에서 차로 약 12시간 걸릴 정도로 멀리 떨어진 외곽지역이기 때문에 주변에 학교가 없어 마을에 있는 쉼뻏사(주지 우약카스님)에서 주변 마을 학생 420명의 교육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제대로 된 교실이 없어 바닥에 칠판을 놓고 가르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고등학교로 진학해 교육을 받으려면 대도시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은 공부를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다.

월서스님은 “제3세계 아이들이 배움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은 평생을 부처님 제자로 살아온 것을 실천하는 회향의 의미가 있다. 앞으로도 꾸준히 지원을 이어나갈 것”이라며 “천호희망재단의 후원으로 건립된 교실에서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해 미얀마를 이끌어 나갈 미래의 주역으로 자라난다면 바랄 것이 없다”고 당부했다. 뜻하지 않은 후원을 받게 된 쉼뻏 마을 사람들은 보답으로 공사 작업에 함께 나설 뜻을 밝혔다. 마을 사람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공사는 11월 말에 끝날 예정이다.

천호희망재단은 국가 미래와 발전을 위해서 무엇보다 교육과 인재양성이 중요하다는 월서스님의 뜻에 따라 2012년 6월부터 캄보디아, 네팔, 라오스, 미얀마 등에서 제3세계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 지원 사업을 펼쳐 오고 있으며 미얀마에 앞으로 2개 학교를 더 지을 예정이다.

천호희망재단 02-919-0211

### ◆지구촌공생회

#### 더포아 정혜초·중등학교 건립

지구촌공생회(이사장 월주스님) 시찰단은 지난 6월 10일 미얀마 양곤시 외곽 사우스다곤 타운십에서 더포아 사원학교 대표 더꾸따라 사리 스님과 마을 대표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초·중등학교 건립 협약을 가졌다. 학교가 건립될 더포아 사원학

교는 대나무 기둥과 나뭇잎 지붕에 벽 대신 천을 두른 3칸짜리 비좁은 임시 건물에서 210명의 학생이 뜨거운 햇볕만 가린 채 수업 받고 있다. 비가 오면 수업을 중단해야 할 정도로 열악한 환경이다.

더포아 정혜초·중등학교 건립은 오랜 염원의 결실이다. 정혜사(주지 지섭스님)는 15년 전 미얀마를 순례하며 열악한 교육 현실을 접하고 학교 건립 후원을 결심하게 됐다. 마침내 지난 4월 26일 지구촌공생회를 통해 더포아 정혜초·중등학교 건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1억5000만 원 후원을 약속했다. 더포아 사원도 약 2천4백 평 정도의 부지를 제공하면서 학교 건립 계획이 성사되었다. 더포아 정혜초·중등학교는 오는 7월 말이나 8월 초 기공식을 가질 예정이다. 유치원과 초·중등과정을 모두 운용할 수 있는 지상 2층의 총 12칸 건물로 지어지는데 이는 지구촌공생회가 8개 국가에 지원한 47개 시설 중 최대 규모이다.

이사장 월주스님은 협약식에서 “미얀마의 빈곤한 아이들이 배움을 통해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애쓰고 있는 더포아 사원 학교의 노력에 감명을 받았다”며 “지구촌공생회에서는 더포아 정혜초·중등학교를 크고 튼튼하게 지어 더 많은 아이가 교육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지구촌공생회 www.goodhands.or.kr](http://www.goodhands.or.kr)



(위) 4, 5학년 학생이 수업을 받고 있다. (아래) 대나무와 풀로 엮은 교실 3칸 외에 다른 시설은 없다.

### ◆월드머시코리아

#### 레부고등학교에 장학금 지원

2014년 7월 4일 레부마을은 축제 분위기였다. 2011년 인구 9만의 벽지인 이곳에 고등학교를 건립한 월드머시코리아(대표이사 현진스님)가 116명의 학생에게 희망 장학금을, 또한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한 학생 20여 명에게 ‘우수장학금’을 수여하며 배움의 꿈을 지원했기 때문이다.

현진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학생들에게 “배움의 의지는 여러분의 미래를 좌우한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배움의 끈을 놓지 말라”고 격려했다. 헛마우군(郡) 교육장 우킨마웅쉐 교육장도 “오늘 레부마을 사람들과 학생 여러분은 참으로 복이 많은 것 같다. 이런 깊은 오지에 여러분의 꿈과 희망을 심어준 월드머시코리아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새기고 열심히 공부하여 어디를



가든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 보답하는 길”이라며 학업에 충실할 것을 당부했다. 학생들도 이에 화답, “우리도 열심히 공부해서 스님과 같이 좋은 일을 보시하며 남을 돕는 사람이 되겠다.”고 합장했다. 이날 학생들과 주민들은 장학금 수여식을 마치고 떠나는 일행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며 배웅했다. 레부고등학교는 미얀마 영웅인 아웅산 장군과 그의 딸 수지여사의 고향인 넷마웃군 레부마을에 건립한 학교로, 월드머시코리아는 학생들이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고 있다.

월드머시코리아 02-784-9136

## 굿월드 자선은행, 필리핀 스테판 데이케어센터 준공식 개최

도시 빈민 강제이주 지역에 위치한 쓰레기 맵지지가 필리핀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탈바꿈했다.

불교계 어린이 구호단체 굿월드 자선은행(대표 하일성)은 7월11일 필리핀 라구나주 산페드로시(市)에서 스테판 데이케어센터 준공식을 개최했다. 스테판 데이케어센터가 위치한 곳은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서 150km 떨어진 외곽이며 도시 빈민 2,500가구 약 10,000명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이곳은 인근 지역의 도시 쓰레기가 모이는 맵지지로, 빈민층이 쓰레기를 재활용해 힘겹게 살아가는 곳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역 내 초등학교 입학할 앞둔 유아들과 유치원생들을 위한 교육시설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굿월드 자선은행은 지난해 7월부터 현지 조사에 나서 10월 산페드로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교육시설 건립에 나섰다. 부지는 필리핀 도시개발공사에서 제공했으며, 지역 주민들도 자신들의 아이들을 위한 교육시설 건립에 십시일반 정성을 보탬다.

스테판 데이케어센터는 3살 56명, 4살 112명 등 총 168명이 원생으로 등록돼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기본적인 교육을

받게 된다. 또한, 앞으로 공립학교 허가를 취득해 공식적인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하일성 굿월드 자선은행 대표는 “한 나라를 이끌어갈 미래의 재산인 어린이들을 소중하게 잘 키워내는 일은 국가와 민족의 차이를 떠나 우리 인류가 수행해야 할 공통의 의무이며 사명”이라며 “앞으로 당국의 행정적 협조와 지역 주민들의 성원 속에 굿월드 스테판 데이케어센터가 더욱더 발전해 지역의 소중한 교육 시설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롤데즈 카타퀴즈 산페드로 시장도 “앞으로 이곳 데이케어센터 교육시설에서는 집에서 배울 수 없는 정규교육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준공식에 이어 하일성 대표는 카타퀴즈 시장에게 건물 기증패를 전달하며 데이케어센터의 발전을 기원했으며, 어린이들을 위해 책가방과 색연필, 볼펜 등 학용품들을 지원했다. 특히 책가방은 전라북도 유아교육진흥원 내 위치한 아름다운가게에서 2013년 1년간 판매한 수익금 170만 원으로 나눔에 동참해 의미를 더했다. 글\_ 불교신문





# 미동부청소년, 한국 청소년과 교류의 시간 가져



▲ 기념 촬영 ▼ 즐거운 공양 시간

지난 7월 8일부터 16일까지 미동부청소년한국문화체험연수단과 뉴욕불교신도회 주최, 미동부해외특별교구와 국제불교학교, 조계종 총무원의 주관으로 미 청소년 15명과 인솔교사 등 20여 명이 한국을 방문했다. 참가 학생은 한국인이지만 한국에 대한 자긍심과 이해가 부족한 교포 2.3세대로 7박8일 일정으로 한국문화와 불교문화를 체험했다. 첫째 날 강화 용화선원을 방문하여 환산스님과 함께 사찰예절과 예불을 배우고, 참선 체험을 시작으로 해남 미항사, 대흥사, 화엄사 등 전국 사찰을 방문한 후 16일 조계사 방문을 마지막으로 일정을 회향했다.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된다. 단청의 색깔, 스님들의 의식주를 들여다볼 좋은 기회였을 것이다. 즐겁게 마무리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연수단을 이끌고 온 고병희 단장은 “스님들과 많은 관계자가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신경 써줘서 고맙다. 아무것도 모르던 학생들이 스님을 만나면 합장을 한다. 살면서 고마움 잊지 않고 살길 바란다. ‘World is One Flower’라는 가슴에 새겨진 말처럼 우리는 하나의 꽃으로 살아가길 약속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국제전법단에서는 고병희 단장과 행사 참가자에게 한국의 미가 물씬 풍긴 조각 파우치와 책 등을, 사업단에서는 여권 케이스 등을 선물했다. 이후 미국과 한국 학생이 만나 인사를 나누는 시간에는 서먹하기도 하건만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좋은 인연은 어떤 것일까? “함부로 인연을 맺지 말고, 진정한 인연과 스쳐 가는 인연을 구분해서 인연을 맺어야 한다. 진정한 인연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좋은 인연을 맺도록 노력하고, 스쳐 가는 인연이라면 무심코 지나쳐 버려야 한다.”고 법정스님은 말씀하셨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소중한 인연으로 삶의 여정에 남길 발원한다.

끝으로 발우공양 공에서 저녁공양을 마치고, 한·미 청소년이 다 함께 인사동을 둘러본 후 아쉬움을 뒤로 하고 교류의 시간을 회향했다.

글\_ 편집부

▼ 한·미 청소년이 각자 자기소개를 하고 있다.



## 시드니 정법사, 복지관 기금 위한 바자 개최

호주의 대표 한국사찰 시드니 정법사(호주 기후스님)는 지난 6월 1일 일요일 오전 11시 복지관 설립 기금 조성을 위한 바자 및 먹거리 행사를 했다. 사찰 뒤쪽 민간 가옥 한 채를 새로 사들여서 고령에 접어든 호주 이민 1세대를 위한 노인복지관 개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정법사의 이번 바자회에는 사부대중의 노력과 수고가 함께했다. 공장 정리에 따른 순수한 마제품과 유기농 면으로 제조한 속옷, 양말류, 일반 의류, 스포츠 의류 등 고품질의 후원품들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해서 뜨거운 호응을 받았으며 특히 맛깔난 먹거리 등은 이국 생활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해주었다. 이날 경내는 잔치 집처럼 북적거렸다.



의 도움으로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5월 정법사를 방문한 통도사 주지 원산스님은 노인복지관 개선을 위한 통도사 사부대중의 뜻을 모은 후원금 2만 달러를 전달했다.

스님들의 원력과 대중들의 염원이 담긴 노인복지관이 곧 여법한 모습으로 회향되어 한국불교의 불모지였던 호주에서 정법사의 수호신장들로 시행 생활을 이어온 이민 1세대들의 따뜻한 쉼터가 되어 주기를 기대한다.

정법사는 현재 200세대 이상의 신도들이 법회에 참석하는 지역 대표사찰이다. 작년 11월에는 웨스트미드 아동병원 돕기 제8회 자선 음악회를 갖는 등 지역 봉사활동도 활발하다.

시드니 정법사 [www.jongbopsa.org.au](http://www.jongbopsa.org.au)

## 하와이 무량사, 한국불교 세계화 본고장

▼ 무량사 태평선원

하와이 무량사(주지 도현스님)가 한국 불교를 현지인들에게 알리고 주(州)내 각급 학교 학생들의 한국 문화 체험장으로 그 역할을 넓혀가고 있다.

무량사에서 매주 토요일 진행되는 그레고리 배 박사의 요가와 선 강의에는 법회에 참석하는 한인 불자들보다 더 많은 영어권 불자들이 참석하고 있다. 그레고리 배 법사는 미 상무성의 경제 분석가, 퍼스트 하와이안 뱅크 부사장, UH경영대학 교수, 주지사 특별 경제 보좌관 등으로 활동하다 1990년대 초, 인도와 미 본토의 명상학교에서 본격적으로 공부한 후 1999년 무량사 도현 주지스님으로부터 강의 부탁을 받아 토요일 오후 명상법 강의를 해 오고 있는데 언제부터인가 이 명상반에 참석하는 현지 주민들의 수가 정작 매주 법회에 참석하는 무량사 신도수를 능가하고 있다는 것. 이 같은 현상에 대해 도현스님은 “현지인들의 불교에 대한 관심이 기대 이상이고 일단 명상에 참석한 주민들은 꾸준히 수련을 이어가고 있다. 요즘 이곳을 찾는 주민들을 지켜보며 미주불교 포교의 전진기지로써의 무량사의 역할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된다.”고 전했다.

그런가 하면 무량사는 학생들의 한국 문화체험의 장으로 그 역할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지난 주말에는 태평양/아시안



어패어 카운슬(PAAC)이 개최하는 연례 아시아 지역국 문화탐방단 학생 20여 명이 방문해 한국 문화를 배우고 오리엔테이션을 받는 시간을 가졌다.

나타샤 솔츠 PAAC 고교 프로그램 담당자는 “매년 여름방학을 이용해 주내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아시아 지역국을 방문해 현지 문화를 배우는 연수단을 파견하고 있는데 올해에는 한국을 방문하게 되어 방문 전에 무량사에서 사찰음식과 한국 불교, 한국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고 밝혔다. 도현스님은 “PAAC 외에도 주내 공사립 학교 학생들은 물론 한국문화에 관심 있는 은퇴교사들이 한국 문화를 체험하기 위해 무량사를 찾고 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찰로서 높아지는 역할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신도회와 더불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글\_ 미주한국일보



# 백악관 셰프, 사찰음식에 길을 묻다

백악관 셰프 샘 카스(34)가 한국의 사찰 음식을 배우러 서울 진관사를 찾았다. 7월 2일 진관사를 방문한 샘 카스는 주지 계호 스님과 함께 여름 별식인 콩국수와 오이물김치를 함께 만들었다.

이번 만남은 미국의 대표 음식과 문화를 소개하는 '푸드 스토리(Food Story) USA' 캠페인 홍보를 위해 한국을 방문 중인 샘 카스의 각별한 요청으로 이뤄졌다. 샘 카스는 백악관에서 근무하는 4명의 셰프 중 한 명으로, 1주일에 5번 오바마 대통령의 저녁 식사를 담당한다. 백악관 정원에서 직접 농사를 지으며 제철 채소를 이용한 건강 식단을 만들고 있으며 미셸 오바마 여사가 주도하는 아동비만 퇴치 캠페인 '레츠 무브(Let's Move)'의 상임이사이기도 하다. 미국의 학교급식이 인스턴트 위주이기 때문에 어린

이들의 비만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어린이들에게 제공할 채식 위주의 건강식단의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 사찰음식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다.

계호스님이 "콩국수와 오이물김치가 한 여름 더위를 식히고 몸에 수분과 단백질을 보충하는 데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설명하자 샘 카스는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콩국수와 물김치로 식사를 마친 그는 한국 사찰음식의 담백함에 감탄하며 기회가 된다면 백악관에서 조리해보겠다고 말했다. 또 채식 식단의 풍부한 가능성을 가진 사찰음식은 '레츠 무브' 캠페인의 좋은 아이디어가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자연식, 건강식인 사찰음식과의 만남으로 한국 일정을 마무리한 샘 카스는 다음 날 출국했다. **진관사 www.jinkwansa.org**



## 홍법사, 한·인도 우호 교류 상징 간디 흉상 제막



그동안 한국과 인도의 관계 증진에 노력해온 한나래문화재단(이사장 심산스님)의 노력이 또 다른 결실을 맺었다. 지난해 개원한 부산 인도문화원의 장소와 건물을 한나래문화재단이 기부한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인도 정부가 간디 흉상을 기증했는데 부산 홍법사(주지 심산스님)에서 그 제막식이 열린 것이다. 주한 인도 대사관(대사 비쉬누 프라카쉬)이 주최하고 부산 인도문화원(원장 정택민)의 주관으로 7월 21일 오후 4시30분 부산 홍법사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막식에는 인도정부 인도문화교류위원회의 사티슈메타, 주한 인도대사관 직원 등 인도 정부 관계자와 한나래문화재단 이사장 심산스님, 서병수 부산시장 등 한국 정부와 부산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심산스님은 "부산시와 인접한 김해시는 가락국 당시 인도에서 허황후가 건너왔고, 대부분의 부처님 성지가 인도에 있다."면서 "이 같은 인연이 헛되지 않게 한국과 인도가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도록 민간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간디 흉상이 국내에 세워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도 뭍바이시(뭍)와 자매결연을 맺은 부산광역시 김해시와 함께 '허황후 길'을 개발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방침을 세우

는 등 인도 관련 시책(市策)을 적극 펼치고 있다. 인도문화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매년 인도영화제 행사를 개최하고 있기도 하다.

**홍법사 www.busanbuddhism.com**

## 미국 조지아대 학생들, 선사와의 만남

매년 여름 한국에 찾아와 한국 전통불교를 체험하는 조지아대 학생들이 올해에도 어김없이 한국을 찾았다. 지난 6월 20일 학생들이 찾은 곳은 간화선 대중화의 중심지 부산 안국선원(선원장 수불스님). 학생들은 법회에 참석한 후 한국불교의 대표적 수행법인 간화선의 수행 열기가 가득한 도량에서 불교의 가르침에 대한 의문, 한국이 가진 수행의 전통에 대해 많은 질문을 쏟아냈다. 학생들은 "깨달음의 상태는 어떤 것인가?" "깨달음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등 수행과정과 깨달음에 대해 궁금해 했다. 이외에도 "불교의 가장 큰 아름다움은 무엇인가?" "스님들이 사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등 불교에 대한 질문과 함께 수행자들의 삶에 관해 묻기도 했다. 쏟아지는 질문들에 수불스님은 하나하나 상세히 답하면서 학생들이 불교에 대해 올바른 생각을 갖도록 배려했다.

수불스님은 "서구문화에 익숙해 있는 학



생들이 한국을 직접 찾아와 불교문화를 체험하는 것은 생각의 지평을 넓혀주고,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할 수 있다."면서 "학생들이 불교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조지아대 학생들은 매년 여름 방학 때마다 한국을 찾아와 고창 선운사, 청도 운문사, 부산 홍법사 등 여러 사찰에서 템플스테이를 경험하고 고승들의 법문을 들으며 한국불교를 배우는 한편 초등학교 영어수업, 지역봉사활동 등도 참여하는 등 다양하게 한국문화와 불교를 체험하고 있다.

**안국선원 www.ahnkookzen.org**

## LA 태고사, "개산 20주년 기념 행사로 새롭게 도약할 것"

송산스님의 제자인 미국인 무량스님이 모하비 사막 인근 테하차피에 한국 전통사찰 형식으로 창건한 태고사(주지 형전스님)가 금년에 개산 20주년을 맞이한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태고사는 9월 13일부터 14일까지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먼저 13일에 열리는 전야제 행사에서는 다도시연 및 비구니스님들의 수행과정을 그린 영화 '길 위에서'를 상연한다. 행사 당일인 14일에는 간단한 20주년 축하 법회와 함께 한국 사찰음식 시식회와 축하 공연이 예정되어 있다. 또한 촛불 의식과 태고사 20년의 역사를 둘러볼 수 있는 사진전도 열린다.

태고사는 이번 행사가 한인 불자들 뿐 아니라 현지 미국인들에게 한국불교와 한국문화를 알리고, 화합의 장이 되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한다.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행사를 위한 보시도 가능하다.

태고사는 또한 종무소에서 쓸 컴퓨터 기증을 기다리고 있다. 기증과 버전이

오래되어 사용하기 불편하지만 재정상 구입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집이나 사무실에서 가지고 있는 컴퓨터 등 여유가 된다면 다함께 사용할 수 있는 태고사에 보시는 것도 훌륭한 포교활동일 것이다. 태고사는 매월 두 번째 일요일, LA에서 태고사까지 13인승 버스 두 대를 운영한다.

### ◆ 개산 20주년 기념 행사일정

9월 13일 토요일	저녁 7시 ~ 9시 30분 / 다도 시연, 영화 '길 위에서' 상연
9월 14일 일요일	오전 11시 ~ 오후 2시 / 20주년 기념 법회, 사찰음식축제

- 문의 | 1-661-822-7776 or taegosa@gmail.com

- 주소 | Dobongsan Taegosa, Inc. 8400 Juniper Way, Tehachapi, California 93561



# 카지노에 밀려 사라질 위기에 처한 불교연구소

**프놈펜, 캄보디아** - 캄보디아를 대표하는 불교연구소가 카지노와 부속 건물때문에 이전되거나 폐쇄될 위기에 처했다. 불교 경전연구와 출판의 중심이면서 일반인들을 위한 도서관 역할도 해왔던 이곳이 현재 기존 카지노뿐만 아니라 새로 건설되는 카지노와 부대시설들로 포위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 바람에 사람들의 발길도 끊겼다. 나가 2 카지노 부속호텔(1,000 객실 규모)이 들어설 길 건너편으로는 크레인 이 솟아 있다. 왼쪽으로는 새로 건설되는 단지과 불교연구소 뒤의 24층 나가월드를 연결하는 지하 도로를 만들기 위해 굴착기가 땅을 파고 있다. 연구소 부지 오른쪽으로는 새 건물들에 전력을 공급할 변전소의 강철

구조가 형태를 갖추고 있다. 앞으로 관광공원도 인근에 들어설 계획이다. 이렇듯 거대한 카지노 왕국 건설은 자국의 도박규제를 피하려는 베트남과 중국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크메르연구의 핵심센터로 인정받는 프놈펜 불교연구소는 고대 크메르 필사본의 보존, 스캔, 목록작성뿐만 아니라 출판, 연구, 국제워크숍 개최 등의 활동도 벌이고 있다. 1930년 프랑스의 지원으로 모니봉왕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캄보디아 문화의 보존 및 개발 활동의 중심이면서 캄보디아 최초, 최대의 출판기관이기도 하다. 고전문학, 종교문학과 민간설화들을 발표해 왔으며 팔리어 불경을 번역해 110권에 이르는

대장경을 출간했다. 최초의 크메르 사전도 이곳에서 나왔다.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저 곳은 원래 불교계에 속했던 땅입니다. 노르돔 시하누크왕이 이 연구소에 기증한 땅입니다. 따라서 누구라도 승단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불하할 수 없습니다.” ‘사회정의를 위한 독립네트워크’의 설립자 부트 분텐스님의 주장이다.

나가 월드의 홍콩 모회사인 나가 그룹은 프놈펜을 중심으로 200km에 이르는 지역의 카지노에 대한 독점권을 41년 동안 소유하고 있다. 독점계약은 2035년에 만료되지만 카지노 면허는 2065년까지 유효하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종교와 문화의 국가적 중심인 불교연구소가 카지노 개발에 밀려나고 있다는 현실이 젊은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다.

“이것은 캄보디아의 불교학 연구에도 좋지 못합니다. 과거의 업적이 이렇게 홀대당한다면 불교의 미래는 없습니다.”

Ezra Kyrril Erker, Phnom Penh Post [2014. 6. 21]

## 티베트 망명 어린이들에게 깨끗한 식수 공급

**다람살라, 인도** - 인도에 망명한 많은 티베트인들은 여전히 열악한 생활여건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특히 가장 기본이라 할 깨끗한 식수조차도 제대로 얻지 못하고 있다. 티베트 재단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라 공익신탁기금(Lha Charitable Trust)과 손을 잡았다. 라 공익신탁기금에 의하면 티베트 피난민의 94%가 수도물을 그대로 마시는데 이는 정수된 물을 사 마실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소수이기 때문이다. 오염된 물로 인해

만성 위장병, 장티푸스, 콜레라와 같은 질병이 발생하며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일을 못하고 학생들은 결석하기도 한다.

2010년 이후 두 단체는 7개 학교에 식수 정화시스템을 설치함으로써 2,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건강한 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이 학생들에서는 수인성 질환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두 단체는 티베트 망명 정부가 운영하는 심라와 무수리의 티베트 중앙학교에 추가적으로 3대의 시스템(심라 티베트중앙학교에 한대, 무수리 티베트중앙학교의 남녀 기숙사에 각 1대씩)을 설치하기 위해 인디고고(Indiegogo) 모금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이 모금으로 1,5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안전한 물을 공급받게 되며 모금액이 초과할 경우 다른 학교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홈페이지 [www.tibetfund.org](http://www.tibetfund.org) Buddhadharma [2014. 6. 23]



## 사성제 활용한 마약과 알콜 중독 치료법

**몬트레이, 캘리포니아(미국)** - 알콜중독자 갱생회(Alcoholics Anonymous)가 만들어 사용해온 12단계 중독퇴치 프로그램은 그동안 많은 중독자들의 치료에 도움이 되기도 했지만 반면 기독교적 내용으로 인해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었다.

작가이며 불교 법사인 노아 레빈(43)은 불교라는 다른 방법을 제시한다. 10년 전에 자전적 기록 ‘다르마 펑크(Dharma Punk)’를 출판한 후 미국에서 뛰어난 불교작가로 인정받은 그는 최근에 출간한 ‘Refuge Recovery’에서 불교의 수행과 계율에 토대를 둔 중독치료프로그램을 제시한다. 그 자신 청소년기에 마약과 알콜 중독, 소년원생활 등을 겪었기 때문에 12단계 프로그램을 경험했고 그에 대해 감사하고 있다.

“그러나 12단계 프로그램은 외부의 절대자에 의존하는 구조입니다. 신의 존재를 바탕으로 하는 치료법은 기독교적 정신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효과가 있겠지만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그는 중독 치료에 사성제의 가르침을 활용한다. 불교사상의 핵심은 바로 고통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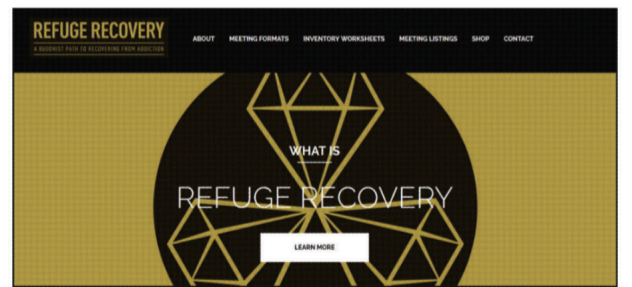
소멸이므로 불교야말로 자연스럽게 중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가 제시하는 불교적 치료 방법은 자신에 대한 정직성, 절제, 공동체를 강조한다. 이러한 접근은 중독과 싸운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다.

“소년원에서 어떻게 하면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고민하던 1988년 그때, 중독과의 투쟁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때 이런 생각들의 씨앗이 심어졌던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털사, 애들랜다, 리치몬드 등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중독자들은 자신들의 상황에 맞춰 프로그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 프로그램을 소유하고 스스로 치료 과정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Wallace Baine, Monterey Herald [2014. 7. 10]



## 룸비니의 천불사원, 독지가 후원으로 건립 박차

**룸비니, 네팔** - 톨쿠 우르젠 린포체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천불사원(Thousand Buddha Temple)의 건립이 30여 년 전 맺은 인연의 도움으로 큰 진전을 보게 되었다. 두 사람의 심장마비가 이런 전환점을 만들어 준 것으로 알려졌다.

약 30년 전 카트만두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던 데이비드 윌립 박사는 심장마비를 일으킨 톨쿠 우르젠 린포체를 치료하게 되었다. 그는 추후의 두려움 없이 심장마비의 고통, 호흡곤란, 확신할 수 없는 결과 등에 의연하게 대처하는 린포체의 태도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최근 박사는 스키 슬로프에서 심근경색을 일으켜 두 시간이나 고립된 채 고통을 받았다. 이제 이곳에서 죽는구나 하는 절망감이 엄습했을 때 돌연 톨쿠 우르젠 린포체의 모습이 뚜렷이 나타나 아무 일 없을 것이라고 그를 격려해 주었다. 이후 기적적으로 회복된 그는 감사의 마음을 표하기 위해 천불사원 건립에 다른 사람들의 기부금 총



액과 같은 금액을 최고 10만 달러까지 후원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기부를 장려하기 위해 500불 이상을 기부하는 사람에게는 보답의 선물로 석가모니 부처 부적을 주겠다고 발표했다.

천불사원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행겁의 시대에는 천 명의 부처가 출현할 것이라는 가르침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에 의하면 석가모니 부처는 네 번째 부처가 된다. 공사는 2011년에 시작되었으며 현재 절반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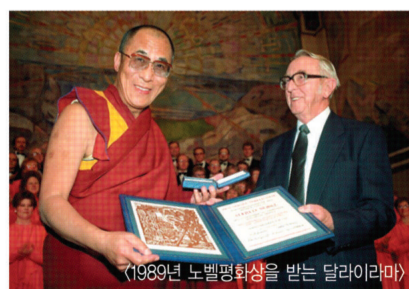
Buddhadharma [2014. 6. 25]

## 2014년을 ‘달라이라마의 해’로 선포

**다람살라, 인도** - 티베트망명정부는 달라이라마의 노벨평화상 수상 25주년을 맞이하여 2014년을 ‘달라이라마의 해’로 선포했다. 다람살라의 티베트중앙행정부의 정

보외교부 장관 타시 푼족은 6월부터 12월 10일(달라이라마가 1989년 노벨평화상을 받은 날)까지 전 세계에서 25개의 축하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Phayul.com에 의하면 이 행사들은 “달라이라마 성하의 79번째 생일뿐만 아니라 티베트 민주주의의 날, 마하트마 간디의 생일 등을 모두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매년 지켜오던 이 기념일들을 금년에는 특히 노벨상 수상자들을 초대하는 등 보다 성대하게 치를 계획이다.



(1989년 노벨평화상을 받는 달라이라마)

Buddhadharma [2014. 6. 24]



# 세계에서 제일 높은 석가모니 유행상(遊行像)

캔디, 스리랑카 - 80피트 높이의 불상이 위엄 있는 모습으로 아래를 굽어보며 서있다. 캔디의 작은 언덕에 넓게 자리 잡은 라나와나 사원에 우뚝 솟은 불상은 이전까지 석가모니 유행상으로서의 최고의 높이를 자랑했던 태국의 붓다몬톤 불상의 기록을 넘어섰다.

“몇 년 전 태국을 방문했을 때 푸타몬톤 지역의 석가모니 유행상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직접 보고 장엄함에 말을 잃었죠. 스리랑카에 돌아와 조각가에게 비슷한 크기로 불상을 조성하고 싶다고 하니 ‘왜 비슷한 불상을 원하십니까? 더 큰 불상을 세웁시다.’ 고 했습니다.” 주지인 암피티에 스님의 말이다.

불상 건립은 초기부터 난제에 부딪혔다. 불상이 세워질 장소가 거대한 콘크리트 불상의 무게를 이겨낼 만큼 지반이 튼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스리랑카의 노련한 건축가 수랑가 라자와다나가 이 문제를 해결했다. 스리랑카의 공학 분야 전문가들은 놀랐다. 이들을 더욱 놀라게 한 것이 또 있다.

“많은 공학자들이 연구차 자주 방문합니다. 이 거대한 불상이 어떻게 한 발로 서 있을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혀 공학적 지식이 없는 일개 조각가가 이 모든 일을 해낸 것입니다.” 주지스님은 건축가 수랑가 라자와다나의 신심과 열정을 강조한다.



라나와나 사원은 또한 인도 산치대왕의 북문을 모방한 입구, 석가모니 부처 이전에 이 세상에 오신 것으로 알려진 24부처상들로 유명하다.

Sean Mós, Buddhistdoor International [2014. 6. 26]



## 광산 개발로 위험에 처한 고대 불교 유적지

메스 야낙, 아프가니스탄 - 천년 불교 유물과 유적지의 발굴이 계속 위협받고 있다. 실크로드의 중요한 경유지로 추측되는 이 유적지는 1963년 프랑스의 지리학자 메스 야낙에 의해 발견된 이후 쿠데타, 혁명, 외국군의 침략, 전쟁 등으로 발굴이 계속 미뤄져 왔다.

그간 소련군들의 이동 루트로, 알 카에다의 훈련캠프로 사용되면서 쇠락하다가 2000년 초에야 고고학자들에 의한 발굴이 시작될 수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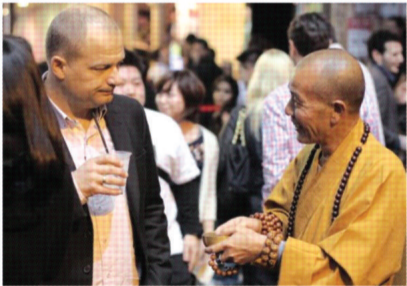
19개 구역으로 나뉜 발굴현장에서 불교사원, 조로아스터교 사원, 탑, 구리 제작소, 광부 거주지, 화폐제작소, 요새와 성채 등이 발굴되었고 쿠산 왕조, 사산 왕조, 인도-파르티안 시대의 동전들과 천 개 이상의 불상도 나왔다. 부처의 일대기를 묘사한 프레스코 작품도 완벽하게 보존되어 발견되었다.

그런데 순조롭던 발굴작업이 다시 위협에 직면했다. 아프가니스탄 정부와 중국의 메탈러지컬 그룹(MCC)이 체결한 광산개발 계약 때문이다. 이 계약에 약 1천억 달러 상당의 구리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이것이 아프간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주요 문화 유적지가 파괴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고고학자들은 25년 정도 걸려야 모든 발굴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MCC는 채굴작업을 위해 금년 말까지는 이 지역을 넘겨받을 계획이다. 고고학자들은 현재 이 유물들을 하나라도 더 건지기 위해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Antonia Blumberg, The Huffington Post [2014. 6. 24]

## 세계 여러 도시에서 활동하는 가짜 스님들

뉴욕, 미국 - 뉴욕의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승려 복장의 동양 남자가 행인에게 다가간다. 축원의 말과 함께 반짝이는 부적을 내밀며 기부를 요청한다. 자신들이 속해 있는 사찰을 위해 기금을 모집 중이라며 사찰 사진을 보여주기도 하고 공책을 펴서 사람들의 이름과 기부액을 보여주기도 한다. 뉴욕의 길인들은 유독 관광객들의 흥미를 끄는데 승려로 가장한 이들은 독특한 복장과 그들이 내세운 신분 덕분에 더 눈에 띈다. 그들은 부적과 단주 등을 주었다가 기부액이 너무 적다 싶으면 적어도 20달러는 내야 한다고 뻔뻔하게 요구한다. 이들이 누구이며 어느 나라 사람인지도 알 수 없다. 불교 신자나 스님이 소속 사찰이나 불교 교리에 대해 물어 보면 침묵하거나 멀리 피해 버린다. 가짜 승려임이 분명해 보이지만 구걸이나 승려 복장이 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기에 경찰은 이들에게 어떤 제재도 가하지 못한다.



승려처럼 옷을 입고 관광객으로 부터 26,000달러를 사취한 죄로 7명을 체포했다. 토론토에서는 돈을 주지 않으면 저주의 마술을 걸겠다고 위협한 사건도 있었다. 뉴욕의 한 목격자에 의하면 황색 승려 복장을 한 사람이 구걸을 마치고 브라이언트 공원의 음식점으로 들어가서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나왔다고 한다. 그 후 그 남자는 플래싱으로 가서 와인을 사들고 새로 도착한 이민자들이 주로 머무는 싸구려 숙박시설로 들어갔다.

미국에서 이들 가짜 승려들은 체포되는 일이 거의 없다. 금년에 경찰은 위협적 구걸과 무면허 상행위를 이유로 9명을 체포했을 뿐이다. 타임스퀘어 광장이나 거리에서 흔하게 눈에 띄는 가짜 승려들의 행각은 계속되고 있으며 이들의 행동으로 인해 거리를 지나는 다른 스님들도 의심의 눈초리를 받아야 하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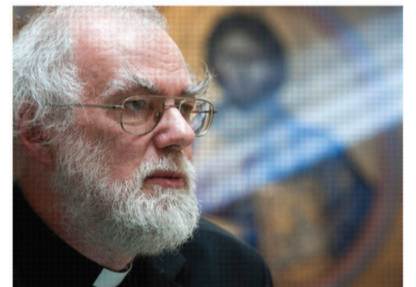
Joseph Goldstein and Jeffrey E. Singerjuly, The New York Times [2014. 7. 5]

## 전(前) 영국 성공회 최고지도자, “불교 명상은 기도 수행에 도움”

런던, 영국 - 로완 윌리엄스 전(前) 캔터베리 대주교는 불교 명상을 통해 순간순간 의식의 깨어남을 경험하고 순간들에 집중함으로써 기도수행을 새롭게 할 수 있었다고 토론했다.

“몇 년 동안 불교를 많이 접하게 되면서 예수기도(‘성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소서.’)의 반복처럼 마음의 평정과 신체적 집중력을 강화하는 수행들에 대해 알게 되었다. 특히 숨을 깊이 내쉬며 천천히 한 걸음씩 내딛는 걷기 명상이 기도에 큰 도움이 되었다.”

뛰어난 신학자, 학자 및 교수로 국제적 명성을 얻고 있는 윌리엄스경은 성공회 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를 아우르는 다양한 저술활동을 펼쳐 왔음에도 자신의 수행에 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도하는 동안 그는 자신의 몸을 호흡이 지나가는 동굴로 이미지화함으로써 마음을 어지럽히는 이미지와 생각에서 벗어나



“아침 일찍 일어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한다. 기도 전 간단한 명상이나 절로 마음을 집중시킨 다음 30분내지 40분 동안 쭈그리고 앉아 숨을 내쉴 때마다 예수기도를 염송한다. 기도 사이사이 호흡을 살핀다. 기도가 계속되는 동안 심장이 차츰 천천히 뛰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는 규칙적으로 명상을 하는 사람들은 영적 발전을 이룰 수 있고 지속적인 내면의 빛을 인식하게 된다고 말한다. 그의 이러한 태도는 불교와 기독교 간의 대화에 새로운 가능성을 시사한다.

Buddhistdoor International [2014. 7. 8]



# 스리랑카 이주민들 ‘우포사트 썰라’ 수행 매진

우포사트 썰라는 스리랑카 전통으로 매월 보름(Poya Day)날 신도들이 사찰에 모여 하루를 보내고 8계율을 지키는 날이다.

지난 6월 29일 양주 스리랑카 마하보디 사에서는 우포사트 썰라 입재식이 봉행되었는데 앞으로 매월 보름날 포살법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8계율은 불교 계율 중 가장 근본이 되는 살생, 도둑질, 음행, 거짓말, 음주 등을 하지 말라는 다섯 가지 생활규범에 세 가지를 더한 계율이다. 화려한 장식물을 금하고, 높은 평상에 눕지 않으며, 정오 이후 식사를 하지 않는 오후 불식 등 세 가지가 여기에 추가된다.

와치싸라 스님은 “8계율은 스리랑카에서 보름날이 되면 스님뿐 아니라 불자 모두가 지켜야 하는 것”이라며 이날 하루만큼은 8계를 지키고 타향살이 시름을 달랠 수 있도록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 이주노동자들을 초대했다. 타향에서 먹고 살기 바빠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8계를 되새기는 자리인 셈이다.

와치싸라 스님은 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스리랑카 이주노동자들이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한국에 자리 잡게 됐다. 1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주노동자들의 든든한 후원

자다. 마하보디사는 스리랑카 및 동남아 출신의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 매주 일요일 한국어와 스리랑카어로 법회를 병행한다.

11시가 넘자 100여 명의 이주노동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법회를 준비했다. 깔끔하게 하얀 옷으로 같이입은 이들은 부처님 앞에 모여 스리랑카식 법회를 봉행했다. 이날은 정오를 넘으면 금식 하는 오후 불식을 실천하는 날. 그래서인지 점심공양 시간도 조금 앞당겨졌다. 법회를 마친 이주노동자들은 스님에게 정성을 다해 공양을 올리고 삼삼오오 모여 스리랑카 전통음식을 나누며 오랜만에 한가로운 주말을 보냈다. 한국에 온 지 5년째인 로완씨는 “한국생활을 하며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8계를 실행하고,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마하보디사를 찾았다.”며 “주말 근무로 매주 오지는 못하지만 타지에 마음의 안식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든든하다.”고 말했다.

한편, 7월 포살법회는 27일 일요일 오전 9시~4시까지 진행된다. 스리랑카 전통 포살법회에 동참하여, 스리랑카 전통 불교수행과 더불어 음식과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양주 마하보디사 031-876-5858



## 미얀마 전법선원, 우기 안거 가사공양 법회

지난 7월 13일 부천 미얀마 전법선원에는 100여 명의 미얀마 불자들이 모여

우기 안거 기도에 들어가는 스님들께 가사공양을 올리는 법회를 봉행했다.



남방불교의 전통인 카티나 법회는 우기 100일 안거 동안 스님들께서 수행에만 정진할 수 있도록 가사나 발우를 공양 올리는 전통이다. 가사 공양을 올림으로써 스님들께서 우기 안거 동안 수행에 매진하여 미얀마 이주민들에게 부처님 법을 전파하시는 수승한 스승이 되길 발원한다.

부평 미얀마 전법선원

## 추성훈 선수, 한국다문화센터의 레인보우합창단에 광고수익 기부

이종격투기 선수 추성훈 씨의 아름다운 기부 행사가 지난 6월 26일 서울 대웅 제약 베어홀에서 열렸다.

추성훈 씨가 딸 추사랑과 함께 찍은 대웅 제약 이지덤 광고료를 2009년 7월 창단한 대한민국 최초의 다문화가정 아이들로 구성된 레인보우합창단에 후원한 것이다.

사단법인 한국다문화센터(불교, 기독교, 천주교 공동대표) 주최로 열린 후원 행사에는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레

인보우합창단의 공연을 시작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 추성훈 씨는 “앞으로도 레인보우합창단과 다문화가정을 적극 후원하겠다.”며 아이들을 격려했다. 이에 다문화센터 대표 무원스님은 “다문화시대에 함께 더불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외부의 후원이 필요한 비영리사단법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단체를 알리고, 아이들의 역량을 발휘할 뿐만 아니라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다.

사진제공\_애니타임투어



## 이주노동자 출국 후 퇴직금 수령 제도 개선에 관심을 모아라

출국하기 전까지는 이주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 만들어졌다.

이주노동자는 퇴직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출국만기보험금을 받게 되는데 이 출국만기보험금의 지급 시기를 “출국한 때부터 14일 이내”로 관련법에 넣은 것이다.

그 결과 올해 7월 29일부터 이주노동자가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직장을 구할 때에도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본국으로 출국을 해야 한다. 또한, 퇴직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도 이를 받을 수 없다. 한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퇴직금을 본국으로 돌아가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받아내기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와 국회가 법을 바꾼 이유는 이주노동자의 불법체류를 막기 위함이라고 한다. 퇴직금을 받은 이주노동자가 출국하지 않고 한국에서 머무르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 어떤 보고나 조사도 없이 한국정부와 국회가 이주노동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바라보는 편견이 만들어낸 결과이다.

한국인 노동자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부를 받을 수 있다. 한국인 노동자에게는 없는 제한을 이주노동자

에게만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한국인과 이주노동자 모두에게 퇴직금의 중요성은 같기 때문이다.

개정안 재개정을 위해 이주노동자단체들은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마주협도 전국 21개 회원단체와 함께 개정안 철회를 위한 10만인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온라인 서명에도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여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이 국내노동자와 같이 차별받지 않도록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온라인 서명은 <http://migrantwin.org>이다.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02-720-7095

